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국화출입기자포럼 회장

까지와의 러브 스토리

요즘 꼭 필요한 모임이나 약속이 아니면 모두 연기하거나 취소되고 있다. 모두가 집콕, 방콕 생활을 잘 견디어내고 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마음의 위안과 아픔을 받는 뜻밖의 사연을 공개하고자 한다. 사람과의 관계나 일이 아니고 날아다니는까지와의 사연이다.

아파트에서 이곳 주막으로 이사온지 몇 년이 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 앞 조그마한 공원에 나가서 맨손 체조를 하는 것이 나의 건강 유지 비결의 하나이다. 살균력 있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인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는 아름다운 편백나무들과 측백나무가 있는 아담한 공원이다.

어느 때는 집 안의 좁은 마당에서 체조를 하기도 한다. 체조도 일반적인 체조가 아니고 내가 창조한 나만의 독특한 운동법이다. 삼사십 분 정도 하는데, 부드러우면서도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종합 심신 수련법이다.

이른 아침, 집 앞 공원에 나가면까지들은 어느 틈에 내 머리 위의 나뭇가지에 날아와서 반가운 소리를 계속한다. 사람의 말은 아니지만 동물의 말도 진정이면 통하는 것 같다. 너무 이른 새벽이나 너무 늦은 때에 나가면 날아오지 않을 때도 있다. 많은 날들을 하도나 반갑다고

말을 거는 것만 같아서 나도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도까지들에게 '까지야 고맙다.까지야 고마워!'라고 서너 번 대답하는 지경이 되었다.

까지에게 말을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답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무정한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아서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떤 날에는까지가 공원 길을 걷는 내 앞에 사뿐히 내려 앉을 때도 있다. 체조를 할 때는 내가 잘 보일 수 있는 땅 위나, 나뭇가지로와서 나를 바라보기도 한다.

모처럼 아들이 찾아와서 아들과 함께 시내에 나갈 때에는 어느 틈에가는 길 옆에 날아와 있다가 가까이 가면 날아 오른다. 어느 때는 손님이 와서 마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잘 보이는 지붕 가장자리 모서리에 날아와서 소리를 한다. 우리들이 수고가 많다고까지가 위로하러 왔다고 내가 말하자, 그 분은 웃으며 해석이 더 좋다고 대답했다.

피곤하거나 게을러서 아침 체조 하러 공원에 못 나갈 때에는 오전에 내 방문 창가에 와서 큰 소리를 내고 앉아 있다. 내가 문을 열고 나갈 때까지 소리치고 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많은 날을 그렇게 하니, 꼭

나를 부르는 것으로 알 수밖에 없다. 우리 집에까지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까지가 실만한 좋은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내가 먹을 것을 준 적은 한 번도 없다.

집 마당에서 체조를 하는 어느 날에는 공원 큰 나무 위에서까지가 입에 나뭇가지를 물고 내 머리 위로 직진으로 날아오다가 내 머리 위를 스치다시피 날아가기도 했다. 집 뒷쪽에 나무가 있지도 않다. 나에게 행운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평생 처음 겪는 일이다.

어느 날 가슴이 먹먹해진 일도 있다. 시내를 나가려고 집을 나서서 편백나무숲을 지나려는데, 내 앞에서 갑작스럽게 들리는 이상한 큰소리에 깜짝 놀랐다.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보니, 십여 미터 앞 나무에까지 한 마리가 앉아서 나를 보고 우짖고 있었다. 그 소리는 평생 시의까지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 소리는 목 놓아 우는 큰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나에게 말을 전하려는 절규(絶叫) 같기도 했다. 아무튼 영혼까지 끌어모은듯 온몸을 떨면서내는 큰 소리였다. 나는 필력(筆力)이 부족해서 그까지의 큰 외침을 말이나 글로 다 나타낼 수가 없다. 평생 처음 들었고, 앞으로 다시는 듣지 못할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집에서 사

법시험 공부를 할 때 있었던 동물과의 사연이 생각났다. 뿔이 없고 깃을 찌는 양(양소가 아님)을 키웠다. 목줄을 하지 않고 마을 뒷동산을 함께 산책을 하곤 했다. 논과 밭에 나락, 콩, 수수 등 오곡(五穀)이 무르익어서 산책 가는 길가에는 양이 먹을 수 있는 탐스러운 파란 풀잎과 콩잎 등이 풍성했다. 풀잎을 함참 맛있게 뜯어 먹다가도 내가 '이리 와' 하고 두어 번 부르면, 양은 알아듣고 얼른 기쁜 얼굴로 뛰어온다.

해질 녘 산 속에서 날이 저물면, 풀밭에 가부좌(伽趺坐)로 앉아서 호흡 조절을 하고 있는 나의 등 뒤에 다가와서 빨리 집으로 가자는 뜻으로 머리로 나의 등을 가만히 밀어댄다. 양의 따뜻한 체온이 등줄기를 타고 나의 온몸에 퍼지곤 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잠으로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다시 고향에 가서 생활하게 된다면, 양을 키우면서 양을 데리고 동네 뒷동산(깃대이산)을 산책하고 싶다.

지난 광복절 낮에도까지는 아침 체조하러 못간 나의 창가에 와서 나를 부르는 듯 크게 우짖어서 생생한 감동을 주었다. 그런데 어느날 나의 집 앞 길 위에 자동차가 치어 죽어 있는까지를 보았다. 고속도로에서 길을 건너다가 빠른 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죽은 땅 위의 동물은 보았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자동차에 죽은 것은 처음 보았다.

혹시 나를 찾아왔다가 망심하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 같기도 했다. 흘러진 깃털을 모으면서까지의 명복을 빌어주었다.

아, 세상사는 기쁨에는 슬픔이, 빛에는 어둠이 있다.

사설

전공의, 진료현장 복귀 환영한다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파업)에 나선지 28일 만인 지난 4일 정부가 전공의 휴진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는 데 합의했다.

의료계는 이번 파업의 주요 원인이었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중단과 원점 재논의를 이끌어 냈다.

또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주요 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당초 요구했던 4대 의료정책의 중단과 재논의는 물론 다른 의료 현안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을 얻어 낸 것이다.

진료 현장으로 돌아온 의사들이 반갑다.

다급한 정책 과제가 아닌 만큼 코로나19 사태부터 진정시킨 뒤 재논의해도 늦지 않다.

'정책 철회' 명문화 문제가 해소된 것이 합의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됐을 것이다. '중단 후 원점 재논의'가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의협 측이 양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의협의 대응적 자세가 꼬인 실태를 풀었다. 이제 합의문대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논의 중단하고 △(코로나 안정화 후)의정협의체를 구성하며 △(협의체에서)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재논의하는 절차를 밟게 된 셈이다. 내용상으로도 원만하다는 평가를 내릴 만하다.

'여-의협' 간 합의와 달리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의 합의문 서명식은 이날 진통을 거듭했다. 의료계 내부의 이견 때문이다.

그중 전공의들의 반발이 컸다.

그러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의학교육 △전공의 수련체계 등의 발전을 위해 협의체가 논의한

다고 했으니 대전협도 명분을 충분히 얻은 셈이다.

다행히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여당의 합의 이후에도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오늘 현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대생들은 국가고시 응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의 결정을 환영한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 일교울 상담센터 222-5666
- ▲광주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고장신고 121
- ▲전기 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신고 383-0019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농철 '농기계' 사고 주의보

영농철을 맞아 경운기 등 농기계의 잦은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어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머질 전 필자의 지역에서 이른 새벽시간에 경운기를 도로에서 운행하던 중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에 받쳐 큰 사고가 발생했다. 농기계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치사율이 일반 차량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농기계의 특성상 운전자와 함께 동승자도 함께 사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안전

수칙을 준수했으면 한다.

첫째, 농촌 도로에서 무리한 과속이나 추월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경운기 등 농기계는 차량보다 속도가 느리고 후미등이 없어 야간, 이른 아침에 식별이 곤란해 추돌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둘째, 영농철 농기계를 운전하는 농민들도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셋째, 경운기에 경광등이나 야광 반사지를 부착해 야간 등 운행 때

추돌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농기계 사고는 조차이 미숙한 사람에게만 찾아오지 않는다.

자신이 숙련자라고 생각하더라도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일반 차량에 비해 중상이나 사망 등 피해가 심해 농기계 운행 시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